

##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강소*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킬로나 Kelowna
파견대학	Okanagan College	기간	2017. 1. 22(일) ~ 2. 12(일)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오크나겐 컬리지는 시내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버스 1대를 타고 10분에서 15분정도 타고 가면 다운타운이나 오차드 파크몰에 갈 수 있다. 전체적으로 학교는 작은편이고 수업을 듣는 교실은 연극무대실에서 들었으며 밥을 먹을수있는곳은 큰구내식당 1개와 카페테리아 같은곳이 2곳이 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수업내용은 캐나다의 문화등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분반은 하지않고 캐나다를 같이간 사람들과 함께 들었다. 강사이신 선생님은 활발하시고 재밌으셨다. 과제는 대체로 설문조사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프레젠테이션은 한번하고 설문조사는 여러번 한다. 대상은 학교학생들과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하는 방식으로 한다.
Activity	컬링수업, 볼링수업, 아이스 스케이팅, 스키장, 하키경기 관람, 와이너리 방문이 있는데 6개다 비용은 학교에서 지불을하였고 장갑과 스키복등이 필요하다 스키복은 없으면 홈스테이에서 빌려줄수도 있으니 없어도 딱히 걱정을 하지않아도 된다. 볼링은 수영장대체수업이어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수영복을 준비해야할수도 있다. 학교에서 따로 이야기를 안해줘서 수영복을 안챙겨간 사람들이 많아서 볼링수업으로 대체해서 들었다.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봄여름가을은 대체로 날씨가 좋다고 들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오는데 부츠나 장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질정도로 눈이온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대부분 친절하시다 하지만 다운타운쪽에는 불량자들이 좀 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홈스테이로 간 집은 좋았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보일러가 없어서 바닥이 추웠다. 바닥에 러그가 깔아져있는 집들이 있었지만 내가 지낸 집에는 없 었다. 히터는 천장에 배수구같이 생긴곳이다</p>
식사	<p>학교식당(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집에서 점심을 싸워서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나는 싸주시지 않아서 내가 알아서 싸왔고 아니면 구내식당에서 사먹기도 하였다 대부분 캐나다돈으 로 7~8달러 정도 한다. 저녁은 밖에서 먹기도 하고 집에서 먹기도 하였는 데 집에서는 스파게티나 닭가슴살을 먹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버스이용, 버스는 배차간격이 크고 겨울에는 눈이많이와서 운행이 늦어지 고 잘못하면 안할수도 있어서 기본 20분정도는 밖에서 기다려야한다 버스 를 탈때는 정거장을 알려주지않아서 알아서 내려야한다. 한국과 다르게 정지벨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버스안에 연결되어있는 줄을 밑으로 당겨야 한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	약 1,50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외식	20만원	
쇼핑	12만원	
기념품	23만원	
합계	205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겨울용 신발이나 장화를 챙겨야 한다 눈이 많이올때는 무릎밑까지 와서 신발이 젖는다. 그리고 캐나다 사람들은 자가용을 많이 타고 다녀서 인도길의 눈을 잘 안치운다. 캐나다 구경을 하고 싶어서 같이간 친구들과 밖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서 외식을 생각보다 많이했다 일주일에 4번정도는 밖에서 밥을 많이 먹어서 지출비용이 생각보다 많았다. 캐나다 구경을 많이할거면 넉넉하게 50만원 정도는 환전해야지 놓고 기념품을 살수있는것 같다. 많이 춥기 때문에 코트를 가져오지말고 두꺼운 옷들과 패딩을 챙겨야한다. 밤에는 많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술집과 식당에는 많이 있지만 저녁 7시이후에는 집밖에 잘 안돌아다닌다. 기념품점에서 단풍모양 사탕을 살거면 체리맛을 추천한다 갈색 사탕은 물엿맛이여서 그냥 설탕먹는 느낌이다. 와이너리 와인은 다른곳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견학을 간다면 그곳에서 사는 것이 좋다 대략 비싼게 2~3만원정도 하고 식료품점 같은곳에서 5만원이넘는다. 집에서는 추울수가 있어서 수면양말을 가져가면 좋을것같다. 그리고 가끔 한국음식이 그리울때도 있어서 핫반이나 컵라면 그리고 김을 챙겨가는것이 좋다. 학교안에 전자레인지가 여러개 있어서 핫반을 데워먹을 수 있고 학교안에는 정수기가 있지만 뜨거운물이 없기 때문에 학교안에 조그마한 카페에 가서 뜨거운물 파냐고 물어본다음에 컵값만 지불하고 사서 컵라면에 부워먹으면 된다. 컵값은 50센트다. 그리고 만약 홈스테이 가정이 나쁘게 대한다면 빨리 학교에 말해서 바꿔야한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캐나다의 문화를 알 수 있고 영어를 많이 쓸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날씨가 아쉬웠다. 만나는 현지인들마다 어디를 가야하고 무엇을 해야할지 물어보면 항상 여름에와야지 좋다고 해서 안타까웠다. 다른친구들에게 추천을 한다면 여름에 가는 것을 추천한다. 밴쿠버는 킬로나와 차로 4~5시간 걸리지만 날씨는 킬로나와 다르게 봄, 가을 날씨에 코트하나만 입어도 될정도로 좋다고 같은시기에 밴쿠버를 간 친구에게 들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지원하게 된다면 여름에 지원하고싶다. 하지만 여러사람들을 만나고 캐나다인 친구들을 사귄수있어서 좋았다. 또한 홈스테이 가족과는 많은 대화를 나눠야한다. 서로 오해가 있어서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낄수 있기 때문이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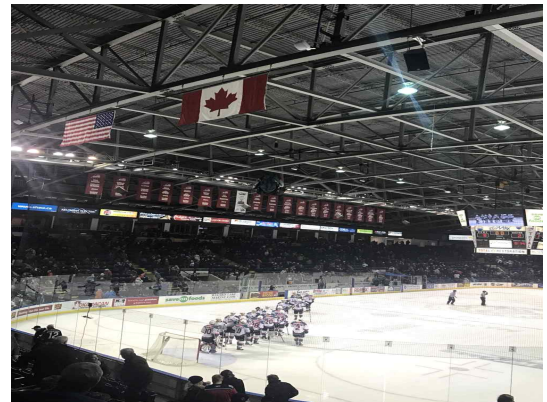
수업을 듣는 교실 건물 바깥이다.



학교 바깥 전체적으로 작은편이다.



보이는것처럼 눈이 많이 온다



하키 경기 관람을 갔을때이다 경기를 보는중에는 화장실을 갈수도 없고 사진도 찍을수 없다.



로드레빈이라는 햄버거집에 갔었다.



홈스테이에서 먹은 저녁이다 맛있었다.